전남도, 나주천 수해 상습지 사업 차질

일제 강점기 하천 석축처리 놓고 주민 찬반 논란

"강제 노역 축조 학술적 가치" VS "문화재적 가치 없다"

'일제 강점기에 쌓은 하천 석축을 보전해야 할까, 철거해야 할까."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나주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나주천 석축처리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나주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전남도가 총사업비 345억을 들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현동에서 삼도동 영산강 합류부 까지 5.5 km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다.

전남도는 우선 1차적으로 상류부 공사를 마치고, 시가지를 흐르는 나주천을 대상으로 2차공사를 벌이기 앞서 문화재청에 나주읍성내 나주천 개선사업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냈다.

문화재청은 전남도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사업 구간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서성벽지·서수구 문지·동점문지 등 역사시설물이 매장돼 있는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회신 답변을 보냈다.

또한 호안구조 및 교량 개선방안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향토 사학자, 관계 전문가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법을 강구토록 했다.

하지만 나주지역에서 나주천 석축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나주천의 석축은 일제시대에 주민들의 강제 노역으로 축조됐기 때문에 학술조사를 실시해 학술적 가치와 보존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일제 잔재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고, 문화재적 보존가치도 없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한국문화사랑연대 나일환 회장은 "나주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나주의 역사성과 문화재적인 환경에 맞는 나주천으로 설계를 변경해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강진 청자축제 '4대 악재' 불구 빛났다

〈폭염·올림픽·박람회·경제불황〉

청자 판매·입장료 등 30억 수입 실적

'한·중·일 자매도시 도자기축제' 추진

지난 28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40회 강진 청자축제'가 폭염 등 4대 악재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4대 악재는 연일 35도를 웃도는 유례없는 폭염과 마지막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여수 엑스포, 온 군민을 TV 앞으로 끌어 모으는 런던올림픽 중계,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경제불황 등을 꼽을 수 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 기간동안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청자판매 및 체험 4억3300만 원, 향토음식관 6억1300만 원, 사전예매 및 입장료 15억4200만 원 등 총 30억41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직 · 간접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00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축제에서 청자의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청자 일일교실'은 청자에 대한 학습과 체험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 과제물로 인기를 끌었다.

또 물레성형 체험, 조각체험, 청자도판 찍기, 청자상감 체험, 청자코일링 체험 등은 관광객들로부터 다른 축제 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강진군과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하사미정, 중국 용천시와 관계자들이 축제장을 방문하고 '한·중·일 자매도시 도자기 예술축제' 추진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마삼섭 강진향토축제 추진위원장은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800여 공직자와 5만 군민, 20만 향우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댐주변 초등학생 영어 캠프 열린다

k-water 전남본부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는 여름방학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9박 10일간 장흥군 남도국제교육원에서 전남지역 댐 주변 지역(주암댐·장흥댐·수어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영어교육 전문법인인 (사)남도청소년 문화진흥원이 진행하며, 댐 주변 지역 12개 학교 80명이 참가한다.

참가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원어민 강사와 생활하면서 골든벨·상황극·스피치·팝송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된다.

우수학생들에게는 포상과 함께 11월에 열릴 예정인 'K-water 전국 영어경진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신송운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댐 주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물반 사람반 여름철 대표 물놀이장으로 손꼽히는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기찬랜드는 개장 한달만에 5만여명의 입장객을 맞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주용 모형 F1 자동차 컴퓨터로 실물 구현

목포대, F1 모형 자동차 설계 과학캠프

목포대학교는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를 사랑하는 지역 중·고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12 F1 모형 자동차 설계 과학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모형 자동차 설계·제작·측정 기술을 경험하는 과학캠프로, 전남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목포대학교 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이뤄 20분의 1로 축소한 경주용 모형 F1 자동차를 컴퓨터설계(CAD), 컴퓨터실험(CFD) 및 컴퓨터제작(CAM·CNC)을 통해 실물로 구현하며 성능 향상을 꾀하는 과정에서 모형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깨우친다.

특히 이번 캠프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영암 F1 경기장 패독클럽에서 상반기 교육생들과 과학캠프 참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는데 공헌하며 F1 대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사회공헌실천운동 나선 축산인들

'나눔축산 운동' 도지부 결성

축산인들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공헌 실천운동에 발벗고 나선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나눔축산 운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나눔축산 운동본부 전남도지부를 결성했다. 지부장에는 구희우 영광축협 조합장이 추대됐다.

'나눔축산 운동'은 '축산업하면 분뇨·냄새 등을 야기하는 혐오산업'이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범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사)나눔축산 운동본부 도지부는 앞으로 범 축산업계의 순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소외계층 후원봉사 ▲경종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일손돕기 ▲하천정화 등 환경개선활동 ▲축산현장 견학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나눔축산운동본부 도지부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영광과 장흥 2곳에서 축산단지 인근 경종 농업인 250여명을 초청해 '축산물 정(情) - 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구희우 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장 "축산인의 작지만 소정한 정이 담긴 삼계탕을 이웃 경종농업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진도경찰서-郡 의사회 주취폭력 척결 업무협약

진도경찰서(서장 임홍기)는 지난 3일 경찰서 예향홀에서 진도군 의사회(회장 오승호)와 주취폭력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찰서와 의사회는 주취 폭력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로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진도군이 되도록 서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상호 협약을 통해 약속했다.

또 5대폭력 척결 태스크포스(TF) 팀 회의를 열어 각 기능별 추진사항 등을 검토하고, 주민 대상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5대 폭력 척결에 적극 힘쓸 것을 다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